

캡스톤디자인 3월 마지막주 진행보고서

20175306 김선민

맡는 역할 : 프론트 엔드, UI 및 앱 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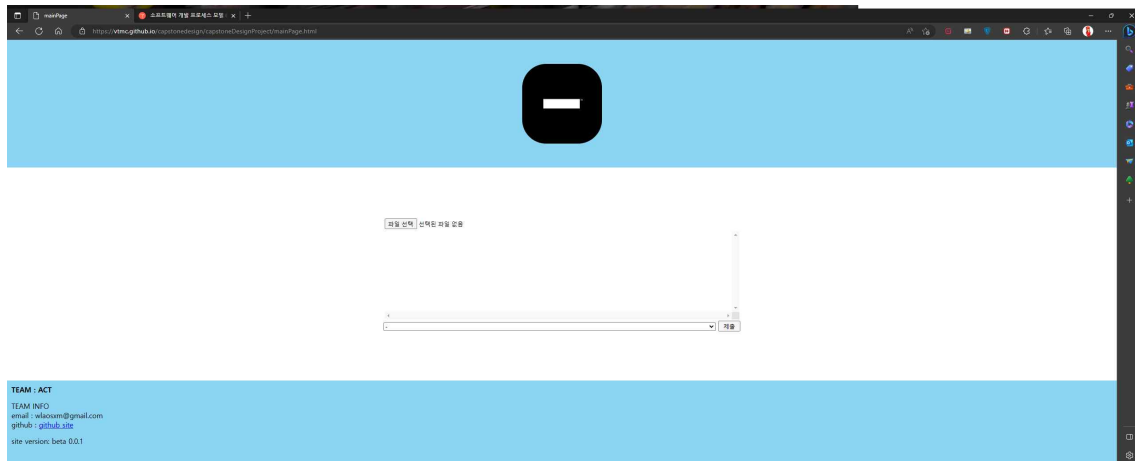
현재 FairyTale은 웹사이트를 통한 하이브리드 앱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다. 그에 맞게 개발을 하려고 한다.

팀 회의에 따라 홈페이지 UI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컴퓨터, 태블릿,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도록 반응형 웹 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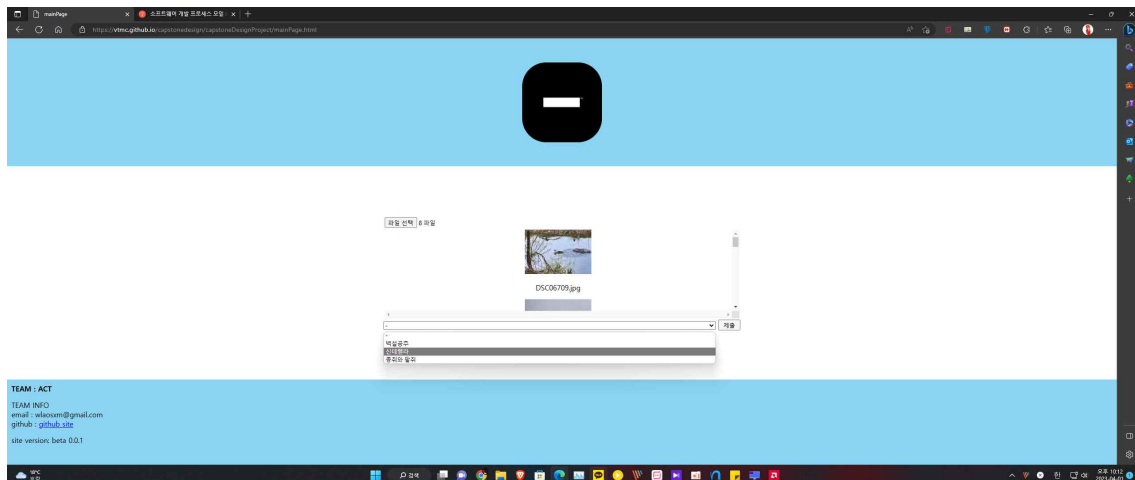
아직까지 모바일 쪽 홈페이지 디자인은 좀 더 모바일에 맞게 개발을 할 예정이다. 좀 더 다듬는 형식으로 할 것이고, 추후에 어플을 개발하게 되면 이 개발된 홈페이지를 어플의 웹뷰에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.

현재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깃허브를 통해 (vtmc.capstonedesign.kro.kr 혹은 <https://vtmc.github.io/capstonedesign/capstoneDesignProject/mainPage.html>)로 들어갈 수 있다.

PC버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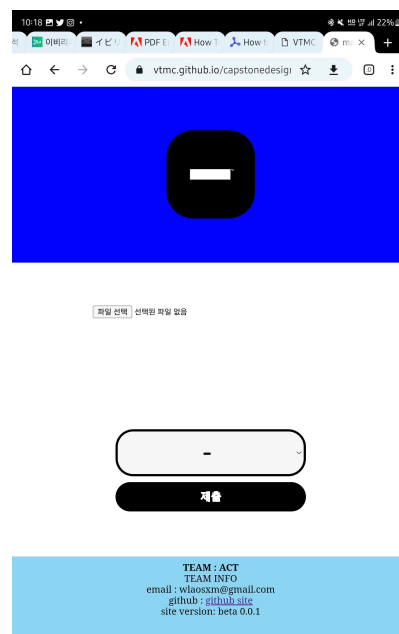
PC로 처음 접속했을 때의 모습



PC버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의 모습인데, 파일 선택을 통해 자신이 고른 사진 파일을 썸네일 형식으로 띄워줄 수 있도록 개발했고, 밑에 선택지와 버튼을 만들었다.

모바일 버전

- 태블릿



태블릿 기본 화면 : 모바일에 맞게 변형이 된 상태로 모바일에 맞게 UI를 좀 더 큼지막하게 하고 위에서 밑으로 일렬로 나열해서 사용하기 한 번에 보기 좋게 만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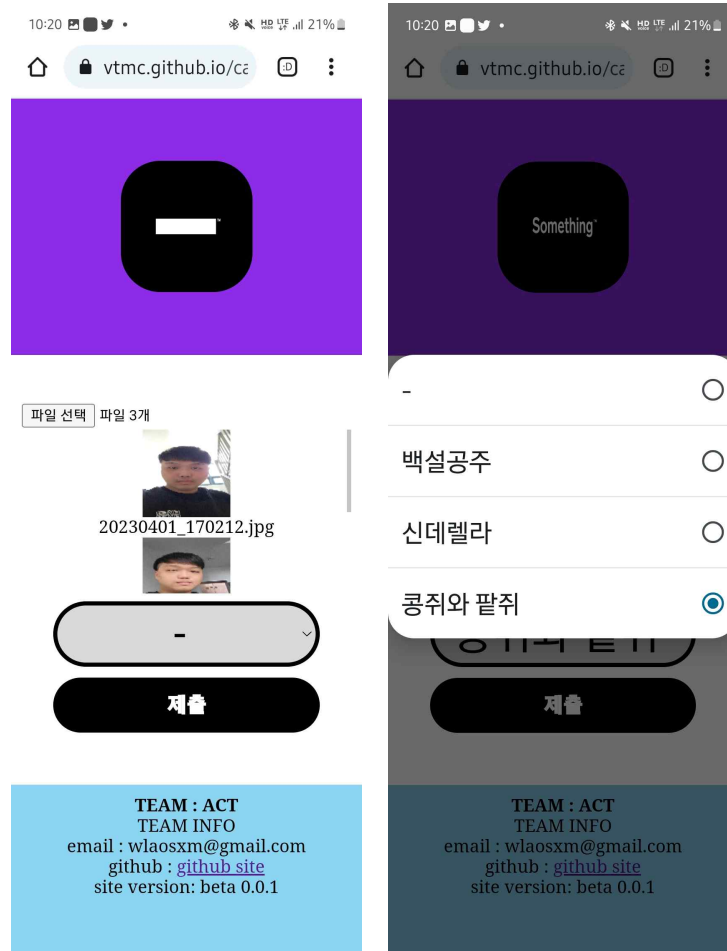


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나 이런 큰 태블릿의 UI인 경우 그에 알맞게 인터랙티브 기능이 구현되어져 있다. 따로 모바일을 위한 그런 개발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.

- 모바일 (안드로이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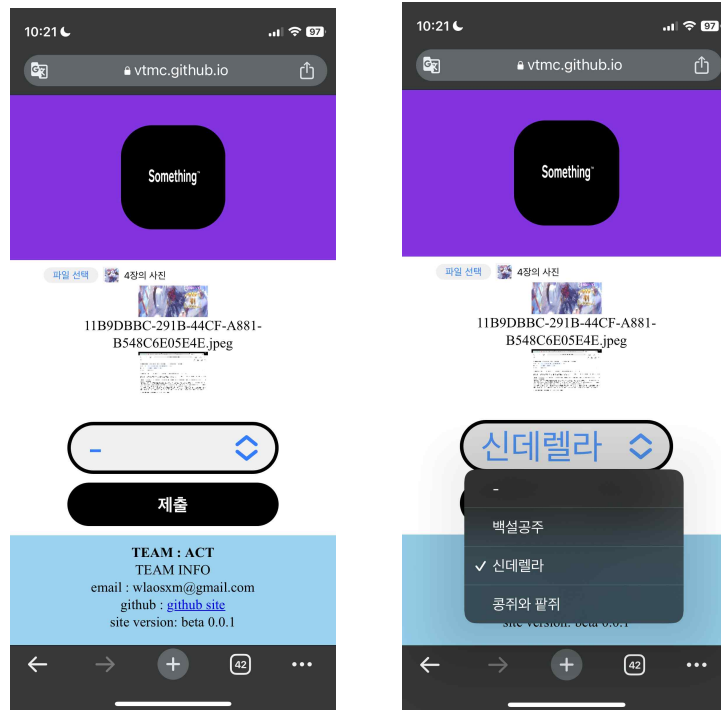


모바일의 경우 버튼이나 이런 전체적인 UI는 둥글게 그리고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디자인했다.



스마트폰 사이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터랙티브 디자인이 스마트폰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. 특히 선택지의 경우 스스로 팝업창을 띄워주도록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디자인 할 필요가 없어보여서 좋을 것 같다. 단순히 모바일 디자인에 맞게 좀 더 다듬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.

- 모바일 (iOS)



iOS의 경우에도 그렇다. 전체적인 방식은 모바일에 맞게 인터랙티브 구현 기능이 다 되어 있어서 따로 건들일 필요 없이 오로지 모바일 UI에만 맞게 구현만 해놓으면 될 것 같다.

- 결론

좀 더 모바일UI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. 또한, 결과물을 받았을 때 이것을 결과화면 창에 띄워줄 수 있도록 결과화면 창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. 좀 더 UI를 모바일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점, 그리고 JS를 통해서 좀 더 인터랙티브적인 구현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.

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게시판 기능을 추가하여 좀 더 이용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공유하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.